

AUTHOR 신복윤

TITLE 칼빈사상에 있어서의 자연신학의 문제 (II)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3 no.6 (February, 1985):381-392

도덕법을 해석하는 기독교강요 제 2권 8장 1항에서 '내면적 율법', '양심' 그리고 '자연법'이라는 말들을 同義語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그는 현재 인간이 소유하는 "羲의 일에 관한 지식"⁴⁷⁾을 설명하면서 異教徒들도 "본성적으로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羲를 소유한다"⁴⁸⁾는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自然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연법의 目的은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는 일이다"⁴⁹⁾라고 말하고, 곧 이어서 이 법은 "선악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의 지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無知를 핑계할 수 없게 하는 것"⁵⁰⁾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러므로 죄인은 마음에 새겨진 선악에 관한 지식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自然'과 양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연법'과 양심의 지적내용이 되시는 하나님의 意志 사이에서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았다.

위에서 보아 온대로, 우리는 칼빈이 생각하고 있는 자연의 질서(ordo naturae)라는 개념이, 물리적 우주와 人間關係에서 다같이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죄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 '자연의 질서'는 근원적인 것을 가리키며, 혹은 '부패한 본성'과 매조되는 규범적인 것을 지시한다. 예를 들면,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자연의 질서는 여자가 남자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여자는 마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¹⁾

이렇게 자연법이라는 말로 良心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意志는 sensus divinitatis와 外部的 世界의 계시와 함께 하나님에 관한 自然的 知識의 제 3의 형식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칼빈의 사상을 살펴보았지만, 그는 自然神學의 옹호자로서 선두주자가 되기에 충분함을 깨달게 되었다.

47) *Inst.*, II. 2. 22.

48) *Ibid.*

49) *Ibid.*

50) *Ibid.*

51) *Com. Genesis* 2: 18

칼빈사상에 있어서의 자연신학의 문제(II)

신 복 윤

〈교수·조직신학〉

III. 하나님지식에 미친 죄의 영향

罪가 하나님 知識에 미친 영향은 매우 깊다. 그러면 sensus divinitatis(神意識)와 외부적 세계, 그리고 良心과 관련하여 그 영향을 차례로 살펴 보도록 하자.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 1권 4장의 제목을 "부분적으로는 無知로, 부분적으로는 邪惡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부패한 하나님 지식"이라 정하고 sensus divinitatis에 미친 죄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살펴하였다.

종교의 썩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심어졌다는 사실은 경험이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이고, 더우기 그 썩음이 자라 성숙하여져서 적당한 시기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떤 이들은

迷信에 사로잡혀 공허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고의적으로 사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타락한 자들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 진정한 敬虔이라는 것은 남아 있지 않는 것이다.⁵²⁾

이 타락의 형태는 몹시 심각하고 다양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머리로 만들어 낸 虛構”에게 예배드리며,⁵³⁾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記憶을 쫓아버리기를” 힘쓰며,⁵⁴⁾ 하나님의 公義와 攝理를 박탈하여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게으름뱅이로 가두어 버린 것이다.⁵⁵⁾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손상을 입힌 것이다.”⁵⁶⁾ “드디어 저들은 막대한 誤謬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는 그 閃光을 질색시켰으며, 마침내는 흉악한 범죄로 그것을 꺼지게 하였다. 하지만 根絶시킬 수 없는 그 씨앗, 즉 하나님에 대한 存在意識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썩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다.”⁵⁷⁾ 이와 같은 주장은 칼빈의 주석과 설교에서도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된다.

둘째로 칼빈은 外部的 世界에 미친 죄의 영향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타락한 인간에게는 외부적 세계에서 얻는 하나님 지식이 sensus divinitatis에서 주어진 지식과 별다른 것이 없다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事役이라는 거울에서 자신과 자신의 영원한 통치권을 명백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서 여기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⁵⁸⁾ 이와 같은 질병은 천한 자와 무식한 자만이 아니라 철학자들까지도 걸려있다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종교적이며 가장 현명한 플라토 까지도 자신이 생각해 낸 둥근 球體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다.”⁵⁹⁾ “여기서 오류의 大洪水는 온 세계

52) *Inst.*, I, 4, 1.53) *Ibid.*54) *Inst.*, I, 4, 1.55) *Ibid.*56) *Ibid.*57) *Inst.*, I, 4, 4.58) *Inst.*, I, 5, 11.59) *Ibid.*

를 뒤덮었으며 각자의 이해력은 마치 하나의 迷宮과 같은 것이 되었다. …그러나 거의 매 사람마다 자신의 神을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⁶⁰⁾ 칼빈은 우울한 심정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세계의 구조에서 創造主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어진 빛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비록 그 광선이 우리 온 들레를 비추어 준다 하더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⁶¹⁾

위에서 본래로 sensus divinitatis와 외부적 세계에 미친 죄의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 知識이 멸절되거나 부패하였다는 것, 그가 받은 것을 소중히 가꾸지 못하였다는 것,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역하였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記憶을 모두 추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의와 섭리와 영광을 박탈하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sensus divinitatis에 미칠 죄의 영향을 논술하는 자리에서 칼빈은 타락한 인간을 묘사하며, 眞理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반역한 존재로 말하고 있다. 인간은 “올바른 탐구의 길을 버리고”⁶²⁾, “진실한데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분에 넘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⁶³⁾ 그들은 또한 “거짓된 신뢰와 제한된 인간적 지식을 넘어서려는 지나친 욕망”⁶⁴⁾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자신을 어리석게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공공연히 부인하고”, “고의적으로 눈을 감으며”, “하나님을 추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없애 버리기를 원하고 있다.”⁶⁵⁾

創造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顯現과 관련해서도 그 이야기는 마찬가지이다. 즉 인간의 상태는 흑암의 상태이기 보다는 차라리 不順從의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인간은 “이 뚜렷한 증거들에 대하여 항상 부주의하며”⁶⁶⁾ 마음을 기우려 창조주를 기억

60) *Inst.*, I, 5, 12.61) *Inst.*, I, 5, 14.62) *Inst.*, I, 4, 1.63) *Ibid.*64) *Ibid.*65) *Inst.*, I, 4, 2.66) *Inst.*, I, 5, 11.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육적인 망상과 타락된 虛構에 빠져 마침내는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부패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疾病에는 천한자와 무식한 자만이 아니라, 아주 저명하고 현명한 자까지도 걸려 있는 것이다.”⁶⁷⁾ 어떤 이들은 “에피큐레스學派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념을 거절하고”⁶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신 그 거울(외부적 세계)을 경시하였으며”⁶⁹⁾,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다.”⁷⁰⁾

셋째로 良心에서 주어지신 하나님 知識은 다른 自然啓示에서와 마찬가지로 죄의 영향을 전적으로 피할 수 없었다고 칼빈은 말한다.

인간 안에 善惡을 분별하는 보편적 판단력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나 건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하면, 그들은 無知를 구실로 해서 핑계할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점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전혀 필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이 아무런 구실도 내세울 수 없으나, 양심의 증거에 의하여 죄를 인식하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대앞에서 떨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족하다.⁷¹⁾

우리의 지식과 十誡命을 비교할 때, 비록 들찌 들비에 대한 이해가 찻찌 들비에 대한 이해보다 다소 더 명백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여러 면에서 盲目的임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自然人是 거만이나 정욕과 같은 자신의 내적인 질병을 책망하지 못한다. 더우기 플라톤은 모든 죄를 무지의 탓으로 돌렸으니 비난 받아 마땅하다. “우리의 理性은 여러 모양으로 기만으로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좋을 때에도 자주 파오에 빠지는 것이다.”⁷²⁾

하나님의 律法에 대한 인간의 무지, 혹은 왜곡의 원인은 *sensus divinitatis*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知識에서와 마찬가지로 죄이다.

67) *Ibid.*

68) *Inst.*, I, 5, 12.

69) *Com. Jer.* 20 : 7.

70) *Com. Rom.* 1 : 27.

71) *Inst.*, II, 2, 24.

72) *Inst.*, II, 2, 25.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빌어 “인간의 자연적 재능들은 죄 때문에 부패하였다”⁷³⁾고 말하고, 나아가서 “선악을 분별하며 이해하고 판단하는 理性은 자연적 은사이므로, 전적으로 파괴된 것은 아니나, 부분적으로는 약화되고 부분적으로는 손상되었기 때문에 기형과 파괴 이외에는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한다”⁷⁴⁾고 하였다. 이와 같은 무지는 생래적으로 원죄의 결과에서 왔다. 더우기 무지는 지금도 여전히 타락한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데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는 本罪의 결과로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양심에 미친 죄의 영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성경에 근거로 두고 있으나, 역시 經驗에서 찾기도 한다. 죄는 다른 두 자연계시의 형태에서 보다는 양심에서 주어지신 하나님 지식에 적지 않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 칼빈은 이 사실을 타락의 일반적인 영향을 논하는 기독교강요 제2권 제2장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타락한 인간이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지를 죄의 구실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만일 異邦인들이 본성적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의 義를 소유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전적으로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自然法(롬 3 : 14, 15)에 의하여 인간이 바른 생활의 규칙을 충분히 배우게 된다는 것처럼 당연한 일은 없을 것이다.⁷⁵⁾

자연법은 선악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의 지각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무지를 핑계할 수 없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 죄인은 “마음에 새겨진 선악에 대한 지식을 피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가 무지로 인해서만 범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⁷⁶⁾ 법에 대한 지식은 신자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도 인간의 모든 집단이 법의 지배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73) *Inst.*, II, 2, 12; Augustine, *On Nature and Grace* iii. 3; xix. 2; xx. 22(MPL 44. 249. 256f.; tr. NPNF v. 122. 127f.)

74) *Ibid.*

75) *Inst.*, II, 2, 22; J.T. McNeil, *Natural Law in the Teaching of the Reformers* (*Journal of Religion* xxvi, 1946) pp. 168—182.

76) *Ibid.*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법의 원리를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없는 것이다.”⁷⁷⁾

더욱 인상적인 것은 칼빈 자신이 良心에서 주어진 自然法을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말하는 결혼이나 국가윤리는 모두가 다 그의 자연신학에서 유래하였다고 까지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칼빈은 十誡命의 둘째 부분이 자연법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의 방법론은 각 계명을 提喻法으로 다루고, 다음에는 그 내용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금지하시는 바를 명령의 원리에 따라 부정을 긍정으로 돌리는 그런 방법이다. 예를 들면, “도적질하지 말찌니라”고 하는 계명은 “각자가 자신의 정당한 소유를 보존하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야 한다”⁷⁸⁾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절차는 분명히 자연법 사용의 범위를 크게 만들어 준다. 칼빈은 모세 5경의 마지막 네 권 주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밟았다. 여기서 그는 儀式的, 政治的 또는 司法的 “보충문”을 각 계명에 첨부하여, 古代 이스라엘의 全律法制度를 하나님의 意志의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칼빈 신학에서, 양심에서 얻어지는 神的 意志에 관한 지식이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곧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그 지식의 범위와 신뢰성을 그가 높이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良心에는 자연신학의 중요한 자료가 있다. *sensus divinitatis* 나 외부적 세계의 계시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반대교리가 여기에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교묘히 설명하려는 강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그러한 노력은 칼빈 사상에 있어서의 양심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부정하지 못했다. 칼빈이 양심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룬 이유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연구한 異教法律은 그의 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계시에서 만나게 되는 부정적인 교훈을 성경에서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 로마서 2:14-16에서는 이에 대한 매우 무게 있고 명백한 지원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위의 귀절과 로마서 1:21이 인간은 마땅히 율법을 알아야 한다는 확신을 지원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77) *Inst.*, II, 2, 13.

78) *Inst.*, II, 8, 45.

IV. 자연신학의 기능

칼빈은 자연신학의 기능을 둘로 구별하였다.

첫째는 원초적인 기능(*the original function*)이다. 이 개념은 칼빈이 타락한 인간의 지식을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본래 자기가 받은 悟性的 빛으로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명상하였으면 마침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⁷⁹⁾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성, 오성 지각, 판단력을 주셨는데, 이것들은 그의 지상생활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 올라가는데 있어서도 충분하였다.”⁸⁰⁾ 宗敎의 씨앗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顯現이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행복에 이르는데 이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⁸¹⁾ 다시 칼빈은 주장하기를, “성경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지식은 창조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꼭 같은 목적으로 설계되었다”⁸²⁾고 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자연의 진정한 질서는 세계의 구조가 경건을 배울 수 있으며, 영생과 완전한 행복을 향해 행동해야 할 學校라는데 있었던 것이다.

둘째 기능은, 자연신학이 인간의 변명을 불가능케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그것이다. 자연신학에서 얻어지는 하나님 지식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수행되는 이 주요기능은 그 원초적 기능과는 아주 다르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율법불순종에 대한 구실로 자신의 無知를 핑계로 내세울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타락한 인간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칼빈의 주장에서 보았다. 그러나 그는 한결음 더 나아가서 강조하기를, 인간의 모든 변명을 제거하고 인간의 책임을 확립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원초적 기능에 속하나, 하나님에 관한 자연적 지식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동일한 罪責下에 두기 위해 피조물에게서 보여주신 자신

79) *Com.* I Cor. 1:21.

80) *Inst.*, I, 15, 8.

81) *Inst.*, I, 5, 1.

82) *Inst.*, I, 10, 2.

의 威嚴을 저들 하나 하나에게 예외없이 보여주셨다.”⁸³⁾ 그러므로 自然法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⁸⁴⁾

율법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느냐 함을 알게 되면, 그것은 칼빈의 자연신학에 흥미있는 빛을 던져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意志에 관한 지식이 주어졌으므로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그 답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쥘 논외의 요점이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서 1:21 주석에서 이 하나님 지식은 변명을 제거하는데 유용한 지식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율법에 관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sensus divinitatis*와 외부적 세계의 계시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위엄과 성질에 관한 지식이기도 하다. 위에서 칼빈은 하나님이 자신의 위엄을 인간에게 계시하셨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道德法을 순종하지 않는데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데 대하여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겸손과 같은 의무들은 칼빈의 판단대로 良心에서는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 지식에서 인간에게 계시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意志에 관한 지식은 책임을 성립시키며, 인간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칼빈이 이 지식의 중요성을 주장함으로써 自然神學을 강조한 것을 보여주었다.

칼빈이 이 지식의 필요성을 변명할 수 없는 것의 조건으로 강조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칼빈은 로마서 1:18-23과 2:12-16에서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명백히 찾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성경적 신학자인 그는 이들 중요한 귀절에서 강한 감명을 받았으며, 또한 이 귀절들이 비록 로마서 5:12-20에 대한 그의 어거스틴主義的 해석과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다. 둘째로 자연신학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특히 法律에 대하여 인간이 실제적으로 아주 광범한 지식을 소유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법률과 인문주의적 학문의 연구,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原罪의 교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

83) *Inst.*, I, 6, 1.84) *Inst.*, II, 2, 22.

나님과 그의 意志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과,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저야함을 주장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위와 일치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이다.

V. 자연신학과 특별계시와의 관계

칼빈은 자연신학을 건설적으로 활용한 반면에, 罪가 지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함으로써 그의 사상에서 전혀 반대되는 듯한 입장을 보여 주었다. 그는 기독교강요, 주석, 설교에서 거듭 인간의 盲目과 우매와 완고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자연신학에서 얻는 지식은 모두가 特別啓示의 준비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따라서 칼빈의 宗教知識論의 중심사상은, 인간이 자연신학을 통하여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은 성경의 해명과 聖靈의 證言에 의하지 않고는 실제적으로 알려질 수 없다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1권 처음 다섯장에서 자연신학을 다루고 나서 즉시 6장과 7장에서는 聖經의 필요성과 聖靈의 內的證言을 논하였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사람의 눈에 비추이는 광채는 사람들의 志願을 전적으로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를 세계의 창조주 앞으로 인도하는 다른 하나의 훌륭한 助力者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의 빛을 가하신 것은 불필요한 일이 아니었다.”⁸⁵⁾ 視力이 약한 사람은 眼鏡의 도움을 얻어야 분명하게 글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된 사상을 우리 마음에서 하나로 집중시키고 흑암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견해를 보여준다.”⁸⁶⁾ 이 성경의 도움은 유익할 뿐만 아니라, 本質的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弟子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참되고 건전한 교리에 대하여 극히 적은 지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⁸⁷⁾ 그러나 성경이 본질

85) *Inst.*, I, 6, 1.86) *Ibid.*87) *Inst.*, I, 6, 2.

적인 것처럼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성령의 증언도 또한 본질적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證人인 것처럼, 그 말씀이 또한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신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神的으로 주어진 말씀을 저들이 충성스럽게 증거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칼빈은 성경과 성령의 필요성에 추가하여 두점의 하나님知識, 즉 창조주 하나님 지식과 救贖主 하나님 지식의 교리를 가르쳤다. 그는 성령으로 증언된 성경이 自然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얻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信仰의 지식과 관련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자연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인간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하지 않는 한, 자연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자연신학은 성경계시를 위한 준비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행전 14장과 17장의 宣敎論證에서 제시된 것과는 정 반대되는 입장을 여기서 보게 된다. 이 논증에서는 자연신학이 복음의 기초로서의 有神論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의 우월성과 성령의 내적 증언을 주장할 때에도 자연신학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자연신학이 특별계시의 준비로서 뚜렷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나 일단 자연신학이 성경의 눈으로 보여질 때 신자는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 지식의 제2의 근거를 찾게된다. “더우기 우리가 보는데로(출 34 : 6에서) 하늘과 땅에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는 完全性들을 여기서 또한 보게 되는데, 이는 仁慈하심과 善하심, 자비하심과 公義, 심판과 진리이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되었다.”⁸⁸⁾ 시편 145편에는 “하나님의 모든 완전성이 정확하고 아주 주의깊이 요약되어 있는 까닭에 무엇 하나도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더우기 여기서 서술된 완전성들은

88) *Inst.*, I, 7, 4.

89) *Inst.*, I, 10, 2.

모두가 다 창조에서 靜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경험이라는 교훈에 따라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고 지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자신됨을 나타내신다.”⁹⁰⁾ 우리가 이미 본대로, 칼빈思想에서 良心에 주어진 하나님 意志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 지식뿐만 아니라, 三位一體, 창조, 섭리 교리를 더 추가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칼빈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더우기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 지식은 창조에서 빛나는 것과 꼭 같은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즉 이 지식은 먼저 우리들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며, 다음으로는 그를 신뢰하게 한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무결한 마음과 거짓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의 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⁹¹⁾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창조주의 啓示는 그밖의 성경적 지식의 근원적인 목적이 되며, 그것은 후자를 조명하여 성경의 제자로 삼아 그 근원적인 목적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

VI. 결 어

우리는 지금까지 두번에 걸쳐서 칼빈의 自然神學을 여러 면에서 살펴보았다. 자연신학의 가능성, 자연신학에 있어서의 하나님 지식, 하나님 지식에 미친 죄의 영향, 자연신학의 기능, 자연신학과 특별계시의 관계 등 여러 항목을 통해서 우리는 칼빈이 자연신학과 자신의 어거스틴主義的 타락관과 원죄교리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느끼는 듯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칼빈을 바로 평가한다면, 그는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인정하되 성령으로 重生한 사람에게는 가능하나 중생하지 못한 自然인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일반계시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익하지만 자연인에게는 무익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90) *Ibid.*

91) *Ibid.*

는 자연신학에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意志에 대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죄와 不信仰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으며, 定罪下에 있다고 하는 성경의 증거를 찾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는 原罪의 교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그의 의지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과 인간이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자연신학을 통하여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은 성경의 해명과 성령의 證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성서 반포사업 (1882~1940)

머리말

- I. 성서 반포의 시작(1882~1892)
- II. 성서공회들의 지부설치(1893~1919)
 1. 대영성서공회 한국지부설치
 2. 미국성서공회 한국지부설치
 3. 연합공회의 성립
 4. 각 성서공회의 분립과 미국성서공회의 철수
- III. 대영성서공회 조선지부의 독자적 발전(1920~1937)
과 민휴의 은퇴
- IV. 성서반포사업의 지원
 1. 성서공회본부의 지원
 2. 성서주일과 한국교회의 지원
- V. 성서반포의 방법
맺는 말
〔부록〕 한국성서 출판·출고年表